

국 어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④

[규범] 띄어쓰기의 이해

[해설]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는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금란이의 나이는 '서른두 살'이라고 써야 한다. 참고로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때에는 '32살 / 32 살' 둘 다 쓸 수 있다.

[오답]

- ① 기간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적는 게 맞다.
- ② 체언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적어야 한다.
- ③ 나열을 할 때 쓰는 '들'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적는 게 맞다.

02. [정답] ②

[규범] 외래어 표기의 이해

[해설] '탈렌트(talent), 앙케트(프 enquête), 커튼(curtain)'은 모두 외래어 표기법에 맞다.

[오답] 답선지의 단어 중 틀린 것만 고치면 다음과 같다.

- ① balance: 발란스 → 밸런스
- ③ sausage: 소세지 → 소시지
remote control: 리모콘 → 리모컨
- ④ Valentine Day: 발렌타인데이 → 밸런타인데이

03. [정답] ①

[어휘] 고유어의 이해

[해설] '탐탁하다'는 '모양이나 태도 따위가 마음에 들어 흠족하다.'의 의미를 가진 고유어이다. 주로 부정의 말과 함께 쓰여 '태도가 탐탁지 않다'와 같이 나타난다. 나머지는 모두 답선지의 설명이 옳다.

04. [정답] ④

[규범] 맞춤법에 맞는 표기

[해설] 받침이 ㄹ로 끝난 단어가 다른 말과 어울려 새로운 단어가 될 때 'ㄹ'이 'ㄷ'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다. '잘+다랴다=잔다랴다'이므로 밑줄은 '잔다랴게'라고 해야 맞다.

[오답]

- ① 어미 '-길래/-기에'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생각했길래'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② '금시(今時)'의 준말은 '금세'로 표기한다.
- ③ '암+개'가 어울려 된 말은 ㅎ이 덧생기는 현상을 인정하여 '암개'로 표기한다.

05. [정답] ①

[문법] 음운 변동 현상의 이해

[해설] '미닫이'만 변동 현상인 구개음화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

- ② 꽃향기[꽃향기 → 꼬향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ㄷ→ㄷ), 자음 축약(ㄷ+ㅎ=ㅌ)
- ③ 잡히다[자피다]: 자음 축약(ㅂ+ㅎ=ㅍ)
- ④ 먹히다[머키다]: 자음 축약(ㄱ+ㅎ=ㅋ)

06. [정답] ④

[문법] 자연스러운 문장의 파악

[해설] 호응도 자연스럽게 의미에도 문제가 없는 문장이다.

[오답]

- ① 왼쪽으로 좌회전하세요: 의미가 중복되었다. → 좌회전하세요.
- ② 나에 의해 구입됐다.: 번역 투의 문장이다. → 나는 새롭게 출간된 책을 구입했다.
- ③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역 투의 문장이다. → 화장실은 건물 바깥에 있다.

07. [정답] ③

[규범] 표준어의 이해

[해설] '장이'는 '미장이'처럼 기술자에게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쟁이'를 쓴다. 따라서 '멋쟁이, 소금쟁이'와 마찬가지로 '점쟁이'로 표기한다. ③은 고칠 필요 없는 것을 잘못 고친 사례이다.

[오답]

- 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이 없는 형태가 표준어이다.
- ② 어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쓴다.
- ④ '한 톨 안에 두 쪽이 들어 있는 밤.'을 의미하는 단어는 '쌍동밤'이 표준어이다.

08. [정답] ④

[규범] 맞춤법에 맞는 표기

[해설] '벗겨지다'와 '벗어지다'는 구분해서 써야 하는 말이다.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것에는 '벗어지다'를, 의도한 행동이나 구체적 힘이 작용한 경우에는 '벗겨지다'를 쓰는데 전자의 예로는 '신발이 커서 자꾸 벗어진다 / 머리가 벗어진 노인'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바람이 불어 모자가 벗겨졌다.'가 있다. ④는 신발을 벗으려고 의도하는 상황이므로 '벗겨지다'를 활용해야 한다.

[오답]

- ① 받치다 :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건을 대다.
* 바치다 : 신이나 옷어른에게 드리다.
- ② 벌이다 : 일을 시작하거나 펼치다.
* 벌리다 :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 ③ 부딪치다 : '부딪다'를 강조해 일컫는 말.
* 부딪히다 : '부딪다'의 피동

09. [정답] ②

[규범] 표준발음의 이해

[해설] 겹받침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ㄹ], 그 외에는 [ㄱ]으로 발음되므로 '맑다[막따]'이다. 겹받침 ㄹ은 [ㄹ]로 발음되나 '밭다'와 '넓-'으로 시작하는 복합어만 [ㅂ]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넓둥글다[넙뚱글다]', '엷다[열:따]'이다. 겹받침 ㄹ은 [ㅂ]으로 발음하므로 '옳다[읍따]'가 표준발음이다.

10. [정답] ①

[문법] 합성어의 종류 이해

[해설]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어말어미가 생략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①과 같이 조사가 생략된 것(용쓰다-용을 쓰다)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의 생략은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문법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

- ② 부슬비: 부사(부슬)가 명사(비)를 수식했으므로 비통사
- ③ 검붉다: '검다-붉다' 사이의 연결어미가 생략되었으므로 비통사
- ④ 늦잠: 형용사 '늦다'의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채 명사를 수식했으므로 비통사

11. [정답] ①

[문학] 시조의 이해

[해설] 제시된 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소반 위의 감이 고와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갈 만 하다마는
품어 가도 반길 이 없으니 그로 인해 서러워 하는구나.

회고고사(오의 육적이 원술의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가하였을 때, 모친을 생각하여 글을 품어 달아났다는 고사.)를 떠올리고 지었다는 이 시조는 감이 너무 고와서 어머니께 가져다드리고 싶지만 어머니가 없어서 그럴 수 없는 것이 서럽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조홍감'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고, 중장이 바로 회고고사를 인용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즉 風樹之嘆(풍수지탄,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孝行)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 ② 自書自讚(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
- ③ 驍肉之嘆(비육지탄): 능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한갓 세월만 보냄에 대한 탄식.
- ④ 尸位素餐(시위소찬):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받아먹는 일.

12. [정답] ③

[문학] 소설 구절의 이해

[해설] '저 사령 거동 보소'는 서술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하는 말이다. 이는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공연 중 관객에게 말을 걸던 흔적이 소설에 남은 것이다. ㉠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사령'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오답]

- ①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어사또의 마음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문맥상 발화자가 '어사또'이므로 자신을 '먼 데 있는 걸인'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명관(冥官),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은 변 사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반어법으로 볼 수 있다.

[참고]

- * 관청색(官廳色) : 조선 시대에, 수령(守令)의 음식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관청빛.
- * 다담(茶啖) :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茶菓) 따위.
- * 육고자(肉庫子) : 육고에 속하여 관아에 육류를 바치던 관노(官奴).
- * 고인(鼓人) : =공인(工人). 조선 시대에,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맡아하던 사람.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이 있었다.
- * 승발(承發) : 지방 관아의 구실아치 밑에서 잡무(雜務)를 맡아보던 사람.
- * 사령(使令) :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 * 차일(遮日)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 * 기치(旗幟) :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깃발.
- * 군물(軍物) : 군대에서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육각(六角) : 북, 장구, 해금, 피리, 태평소 둘로 이루어진 악기 편성.
- *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 * 나삼(羅衫) :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만든 적삼. (적삼-윗도리에 입는 홑옷.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 * 안전(案前) : 존귀한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의 앞.
- * 주효(酒肴) : 술과 안주.
- * 혼금(閹禁) : 관아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지하던 일.

* 훗입맛 : = 뒷입맛, 뒷맛.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입에서 느끼는 맛. 또는 일을 끝마친 뒤에 남는 느낌.
'훗입맛이 사납겠다', 또는 '뒷맛이 쓰다'는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남는 느낌이 좋지 않다는 뜻.

13. [정답] ④

[작문] 개요의 완성

[해설] ㄷ, ㄹ은 모두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다.

[오답]

- ㄱ. <본론 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실태>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 ㄴ. <결론>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 ㄹ. <본론 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실태>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14. [정답] ④

[문학] 갈래의 이해

[해설] 가전체는 소설의 전 단계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소설의 한 갈래'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조선 세조 때에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 《금오신화》이다.

[오답]

- ① 가전체는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대표 작가로는 임춘, 이규보 등이 있다.
- ②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주는 갈래이다.
- ③ 사물의 전기문 형식으로 마지막에 작가의 평을 덧붙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15. [정답] ④

[비문학] 전개 방식의 이해

[해설] 글의 1단락에서 용어 '장르화'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오답]

- ① 익숙한 대상(풍속화)과 비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장르화의 특성은 있지만 미적 효과의 분석과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16. [정답] ③

[어휘]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 이해

[해설] ㉠은 역사화 이외의 모든 그림을 지칭하는 것이고 ㉡은 역사화 뿐 아니라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을 모두 제외한 그림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집'도 원래는 여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여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므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하겠다.

[오답]

- ① 지갑 : 종이로 만든, 물건을 담은 작은 상자 → 가죽이나 비닐, 형겅 따위로 만든 것들도 포함 = 의미 확대
- ② 인정 : 벼슬아치들에게 몰래 주던 선물' →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 의미 이동
- ④ 영감 :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 → 남자 노인' = 의미 확대

17. [정답] ③

[비문학] 내용의 이해

[해설]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다수가 합의한 쪽으로 의사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지만 완전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완전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답]

- ① 첫 문장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전제로' 한다고 나와 있다.
- ② 정치적 의사 결정은 다수결과 강제성을, 시장적 의사 결정은 완전 합의와 자발성을 원리로 한다.
- ④ 마지막 문장에서,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한 완전 합의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만일,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면 완전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18. [정답] ②

[문학] 표현법의 이해

[해설] 밑줄 친 부분에는 역설의 한 방식인 모순형용이 사용되었다. ②에서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역설이 나타났다.

[오답]

- ① 감정의 이입: 화자의 슬픔이 산평의 울음에 이입되었다.
- ③ 직유: '늑(너)'를 '산새'에 비유하였다.
- ④ 대조: '번지'가 대조적으로 제시되었다.

19. [정답] ③

[문학] 시적 상황의 파악

[해설] 제시된 시조와 ③은 모두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시조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입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 주제: 이별의 슬픔

③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형제로 세 사람의 몸이지만 한 몸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날마다 해 지는 문밖에 서서 한숨을 못이겨 하노라.

* 주제: 헤어진 형제를 그리워함

[오답]

- ① 오늘도 날이 밝았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도 좀 매어 주마 /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 주제: 근면성실과 상부상조
- ②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는 몸이 되어 / 오십 년 세월을
해온 일 없이 지냈구나 / 두어라 어느 곳의 청산이야 날 꺼릴 줄이
있으랴. *주제: 자연 귀의
- ④ 고개 넘어 성 권릉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 누워
있는 소를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올라타고 / 아이야, 네 권릉 계시나
정 좌수(화자) 왔다 일러라. *주제: 향촌 생활의 흥취

20. [정답] ①

[한자] 한자의 파악

[해설] '시장권'은 '시장 지역'의 의미이므로 '市場圈(저자 시, 마당
장, 우리/지역 권)'을, '학군'은 '지역별로 설정한 학교의 무
리'를 의미하므로 '學群(배울 학, 무리 군)'을, '소원'은 '사이
가 멀다'란 의미이므로 '疏遠(소통할 소, 멀 원)'을 쓴다.

[오답]

學君(배울 학, 임금 군): 공부하는 임금

所願(바 소, 원할 원): 원하는 바

영 어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단어속어정리]

blandish [blændɪʃ] v. 아첨하다, 감언으로 설득하다
 coax [kouks] v. 감언으로 설득하다(=cajole, implore, induce, persuade)
 cheat ~ into ~를 속여 ...하게 하다

[해석]

그는 그의 친구에게 알랑거리 그의 회사 물건을 사게 했다.

02. [정답] ②

[해설]

빈칸 전후의 내용이 모두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고르면 되겠다.

[단어속어정리]

eliminate [ɪlɪmənèit] vt. 제거하다
 currency [kʌ:rensɪ, kʌr-] n. (화폐의) 통용, 유통, 통화, 화폐
 contribute to ~에 기여하다
 underlying [ʌndərlaɪɪŋ] a. 기초가 되는, 근원적인(=fundamental)
 monetary [mʌnətəri, mʌn-] a. 화폐의, 금전(상)의, 금융의
 muddle [mʌdl] v. 혼잡하다, 혼란시키다
 integrate [ɪntəgrèit] v. 통합하다(=unify)
 transpire [trænspraɪə:r] v. 증발[발산]하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exacerbate [ɪgzæsbəreɪt] vt. (고통·병·노여움 따위를) 악화시키다, 격분시키다

[해석]

유로화 자체가 주요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다. 즉 유로화가 환을 위험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췄으며 유로 존 내의 무역을 증가시켰고 그리고 유럽 금융 시장을 더욱 단단히 통합시켰다. 더욱 보편적으로 단일 통화가 유로 존 내의 금융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저 문화에 기여했는데 이는 오늘 토론에서 간과했던 중요 포인트다.

03. [정답] ②

[단어속어정리]

overbearing [ðʊvərbéərɪŋ] a. 거만[오만]한, 건방진, 지배적인
 domineering [dʌmənɪərɪŋ / dʌmənɪər-] a.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arrogant)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native [néitiv] n. 원주민, 토착민
 ability [æbɪləti] n. 능력, 할 수 있는 힘, 솜씨, 재능
 culpability [kʌlpəbɪləti] n. 꾸중 들어야 할 일, 유죄
 domesticity [dʌmestɪsəti] n. 가정적임
 deference [défərəns] n. 복종, 존경, 경의

[해석]

그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병사들에게 보여지는 존경에 익숙해지자 대단히 거만하고 오만해졌다. 그는 권한 의식을 새로이 즐기게 되었다.

04. [정답] ②

[해설]

① after를 전치사로 보고 이후에 동명사 leaving을 취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물론 leave는 타동사이므로 다음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

어를 받은 것이다.

- ② was 동사의 주어는 A number of photographers and a press motorcyclist가 되고 있다. 고로 단수가 아닌 복수로 해야 한다. was를 were로 한다.
 ③ 과거분사로 쓰여 앞의 명사 an official inquiry를 수식하고 있다. by를 통해서 수동, 즉 과거분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nd로 인해 asked가 앞의 filed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iled가 과거로 쓰였으므로 asked도 과거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속어정리]

chauffeur [ʃʊfə, ʃʊfə:r] n. (주로 자가용차의) 운전사
 file a civil action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violation [vəɪələɪʃən] n. 위반, 침해

[해석]

다이애나, 도디 그리고 운전기사 앙리 폴이 리츠 호텔을 나간 후 S280 메르세데스가 파리 퐁들라마 터널에서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다. 보디가드 Trevor Rees-Jones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많은 사진 기자들과 언론사 오토바이 운전사가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검찰은 Judge Herve Stephan의 지휘 아래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도디의 아버지 Mohamed al Fayed는 파리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수사 범위를 넓혀 도디와 다이애나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혐의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05. [정답] ③

[해설]

- ① 'the world's+최상급'의 형태로 '세계에서 가장 ~한'의 의미를 전달한다.
 ② if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정법과과거형으로 쓰인 절이다. 즉 if S were~의 형태로 가정법과과거형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뒤의 we'd win으로 볼 때 가정법 과거형으로 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being을 was로 한다. 즉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다. Having~이 주어이고 being이 동사가 되어야 하므로 being을 was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grow up은 사역동사 have에 걸리는 원형부정사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함정이 되는 것이다.
 ④ 전치사로서 다음의 명사 our surroundings를 목적어로 하고 있다.

[단어속어정리]

introverted [ɪntrovət:rtɪd] a. 내성적인(=introvert)
 extroverted [ékstrəvət:rtɪd] a. 외향적인, 사교적인(=extrovert)

[해석]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가족을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만일 이에 주어지는 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상을 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이는 흔한 일이다. 한국인이 아랍 세계에서 자라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한국인이 사는 것보다 덜 흔한 일이다. 나는 항상 내 누이들에게 양쪽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가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대단히 내성적인 될 수도 있었으며 또는 우리는 대단히 외향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06. [정답] ①

[해설]

- (ㄱ) 여기의 but은 앞의 주어+동사 즉 Older siblings are~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but이하도 주어+동사의 구조를 지켜야 한다. 고로 having을 have로 해야 한다.
 (ㄴ) 명사 ability가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부정사를 취한 것은 옳다.
 (ㄷ) create 동사의 주어는 복수명사인 even small differences가 되는 것이므로 복수동사 create를 사용한 것은 문체될 것이 없다.

(ㄹ) give 동사의 주어는 단수명사인 one inch가 되는 것이므로 gives 로 해야 한다.

(ㄷ) Eli's는 Eli's game를 소유대명사 형태로 줄인 것이다. 즉 앞의 his game과 비교해서 Eli's game이 되는 것인데 이때 반복되는 game을 생략하고 Eli's로 한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sibling [sɪbliŋ] n., a. (보통 pl.) 형제(의), 자매(의)

measurably [méɜz-ərəb-əli] ad. 눈에 띄게, 뚜렷이

have a quick grasp of ~을 빨리 이해하다

writerly [raɪtə : rli] a. 작가의

intuit [ɪntju(:)it] v. 직관(直觀)으로 알다[이해하다]

cascade [kæskéid] n. v. (작은) 폭포, 폭포가 되어 떨어지다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비유]하다

edge [edʒ] n. 끝머리, 테두리, (칼 따위의) 날, 우세, 강점

stature [stætʃə : r] n. (특히 사람의) 키, 신장

make a [the] difference 차이를 낳다, 효과를 내다, 영향을 미치다, 중요하다

[해석]

우리, 아니 하여튼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듣기로 형과 누나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지만 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클루거는 부모들이 만든 작은 차이도 폭포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동생에 대한 형과 누이들의 작은 이점을 형인 Peyton Manning의 1인치 더 큰 키가 자시의 게임에 동생 엘리보다 나은 주는 이점을 비교했다.

07. [정답] ④

[해설]

what brought you here?라는 말은 '무슨 일로 왔느냐?, 왜 왔느냐?'의 의미가 된다. 고로 '책을 가지고 왔다'고 답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

[단어숙어정리]

not really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under the weather 몸이 좋지 않은, 건강이 좋지 않은

[해석]

① A: 요즘 수잔 자주 만나니?

B: 별로.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② A: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B: 그래? 그럼 그냥 집에 있어.

③ A: 차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B: 얼마 드려야 되죠?

④ A: 무슨 일로 오셨죠?

B: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08. [정답] ②

[해설]

Let's call it a day는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 하자"는 의미가 된다. 고로 B가 "내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 옳겠다.

[단어숙어정리]

live on borrowed time (노인이나 병자가) 기적적으로 살아 남다, 덤으로 살다

that's all for today 오늘에 해당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오늘은 이걸로 그만 하자

pick up 다시 시작하다, 차를 태워주다, 물건을 사다, 수거하다, 모금하다

leave off 그만두다, 더 이상 입지 않다

[해석]

A: 오늘은 그만하자.

B: 하지만 아직 이 장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A: 알지만 나 피곤해. 오늘은 그만하자.

B: 좋아. 내일 오늘 끝낸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보기해석]

① 직장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

③ 지금까지만 해도 오래 버틴 거야.

④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봐야지.

09. [정답] ④

[해설]

① let 동사의 주어로 동명사 Returning~을 잡은 것이 어색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let이 사역동사인데 동사의 원형이 아닌 과거형의 realized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20년 만에'라는 것은 '20년 동안의 부재 후에'가 되는 것이므로 전치사 in을 사용한 것도 잘못이다. complete도 부사 completely로 해야 한다. 동사 changed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② when절이 과거일 때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완료로 될 수 없다. 즉 when절이 부사절로서 과거를 담고 있을 때 주절의 시제는 반드시 과거를 포함하는 시제가 돼야 한다. 현재를 포함하는 시제는 될 수 없다.

③ return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it이 되는 형태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물론 형용사 complete도 부사 completely로 해야 한다.

④ when절이 과거이므로 주절의 시제도 과거가 되었고 또한 realized가 that절을 취한 것도 옳으며 그리고 '깨달은 것'보다는 '모든 것이 변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changed로 한 것도 옳다.

10. [정답] ②

[해설]

① cattle는 자체로 복수형이므로 cattles라고 하지 않은 것은 옳다. 또한 have in common의 형태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므로 바르게 쓰인 것이다.

② rose는 자동사 rise에서 나온 것이므로 다음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즉 타동사 raise로 해야 한다. as though[as if]가 가정법을 취해서 조동사 might를 사용한 것은 옳다.

③ '~에 익숙해지다'의 get used to의 표현을 묻고 있다. 바르게 쓰였다.

④ information은 불가산명사이므로 관사나 복수형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including은 전치사로 '~을 포함해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11. [정답] ③

[해설]

첫 문장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later life가 된다. 즉 노년의 결혼 생활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이를 좀 더 좁게 말하자면 '노년의 결혼 생활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핵심어에 해당하는 later life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문이다.

[단어숙어정리]

transition [trænzɪʃ-ən] n. 변이(變移), 변천

marital [mæɪrəl] a. 혼인의(=matrimonial), 부부간의

enhance [enhæns] v. 향상하다, (가치·능력·매력 따위를) 높이다

stem from ~에서 나오다

[해석]

노년의 부부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은퇴를 하고 손자들이 태어나면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이전 연구에서 결혼의 만족이 U자 형이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 그리고 후반기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중반기(그리고 대개 부모의 시기) 동안에는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자녀들이 사회로 나간 이후

에는 부부가 서로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많고 사생활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금전적 자산도 더 많이 갖게 된다. 노년의 부부들 사이의 관계는 평생 함께 한 역사와 경험으로 인해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일부 연구원들은 노년의 결혼 만족 증가가 대체로 자녀들의 사회 진출과 은퇴에서 나오는 부모 그리고 직장에 대한 책임감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기해석]

- ① 결혼 생활의 고통스런 추억
- ② 노인들의 골치 아픈 결혼 생활
- ③ 노년의 결혼 생활
- ④ 결혼 생활의 기복(변동, 부침)

12. [정답] ④

[해설]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어속어정리]

territory [térətò : ri / -t-əri] n. (영해를 포함한) 영토, 영역
 previous [prí : viəs] a. 앞의, 이전의
 ultimately [áltəmitli] ad. 궁극적으로, 마침내
 adjust to ~에 적응하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relentless [riléntlis] a. 가차 없는, 잔인한
 be content with ~에 만족하다
 efficiently [ifíjəntli] ad.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석]

당신은 미지의 분야로 당신 자신을 밀어 넣기 보다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낮은 상황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과거에 반해 있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록펠러의 Standard Oil Company도 같은 딜레마 즉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들은 미지의 것에 도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에 충실해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당신은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한다. 성취와 성공의 가장 무정한 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보기해석]

- 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라
- ②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라.
- ③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 ④ 가능한 한 빨리 변화에 적응하라.

13. [정답] ③

[해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문장 모두 plants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어속어정리]

creative [kri : éitiv] a. 창조적인, 독창적인
 significantly [signifikəntli] ad. 상당히
 enhance [enhəns, -há : ns] v. 향상하다, (가치·능력·매력 따위를) 높이다
 productivity [pròudaktíveti, pràd- / pròd-] n. 생산성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photosynthesis [fòutousinèesis] n. 광합성(光合成)
 refreshment [rifréjmənt] n. 원기회복, 기분을 상쾌하게 함, (가벼운) 음식물, 다과

[해석]

한 미국 연구에 따르면 살아 있는 식물은 창의적인 사고를 늘려준다고 한다. 컴퓨터가 아니가 살아 있는 식물들을 가까이 두어라. 다른 연구

에서도 식물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상당히 낮춰주고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광합성을 하는 가운데 공기에서 산소를 더 많이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보기해석]

- ① 오전 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라.
- ② 약간의 다과로 하루를 시작하라.
- ③ 신선한 꽃이나 식물을 직장 내에 두어라.
- ④ 회사 내에서 건강한 하루를 위해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도록 하라.

14. [정답] ①

[해설]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다. 그러나 본문에서 design이나 mock이라는 단어를 문제의 힌트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즉 mock과 mimic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단어속어정리]

habitat [hæbətæt] n. 서식지
 creep [kri : p] vi. 기다, 살금살금 걷다
 lurk [lɜ : rk] vi. 숨다, 잠복하다
 exhibit [igzibit] n. 전람, 전시
 mock [mak / mɔ(:)k] v. 조롱하다, 흉내 내다, 모방하다(=mimic)
 simulation [simjələif-ən] n. 가장, 속임, 모조품, 가짜 물건
 canyon [kænjən] n. (개울이 흐르는 깊은) 협곡
 waterfall [wɔ : tɜ : fɔ : l, wát-] n. 폭포
 have in common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vegetation [vèdʒətéifən] n. 식물
 immersion [imé : rʃən, -ʒən] n. 몰입, 열중
 mimic [mímik] vt. 흉내 내다
 a wide variety of 대단히 다양한

[해석]

시애틀의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에 있는 재규어의 서식지는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나뭇가지로 기어 들어가서 방문객의 머리 위에 진치고 있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원숭이 전용” 전시실은 아시아의 열대우림을 모방하고 있는데 쓰러진 나무줄기까지 똑같다. 그리고 볼티모어에 있는 자연 수족관에는 호주의 강의 협곡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폭포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전시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시들이 모든 비슷한 기후 지역에서 온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야생에서처럼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전시는 “풍경 몰입”이라 불리는 것으로 동물들의 자연서식지를 모방한 것이다.

15. [정답] ③

[해설]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다. 취재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시위현장에 갔었다는 항의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

[단어속어정리]

turn in 제출하다
 concrete [kánkri : t] a. 구체적인
 ask for ~을 요청하다
 scores of 수십의

[해석]

당신이 동물들의 권리를 위한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2시간 이내에 기사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당신은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 당신이 인터뷰하는 처음 3명의 시위자들이 당신에게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를 든다면, 당신은 다른 3,000명도 또한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다. 불행히도, 당신의 기사가 나갈 때, 당신

의 편집장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항의자들부터 수십 통의 편지를 받는다.

16. [정답] ④

[해설]

빈칸 바로 앞에서 climate change deniers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즉 이 글은 문두에서 Hansen이라는 사람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후 however 부분에서는 지난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지난해가 가장 추운 해였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바로 이런 발표가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어속어정리]

strident [stráid-ənt] a. 귀에 거슬리는, 집요한, 귀찮은
stem from ~에서 유래하다

relay [rí : lei, riléi] v. —(전언(傳言)-공 따위를) 중계하다, 제공하다

institute [ínstətjú : t] n. 협회, 학회 (society), 연구소

anonymous [ənónəməs / ənónə-] a. 익명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brownstone [bráunstoun] n. 적갈색의 사암(砂岩)(고급 건축용, 그것을 사용한 건축물)

Antarctica [æntá : rktikə] n. 남극 대륙(the Antarctic Continent)
go through (~을) 지나다, (서류 등)을 잘 조사하다, 복습하다, 경험하다

unambiguous [ʌnæmbíguəəs] a. 모호하지 않은, 명백한

doubtless [dáutlis] ad.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이

seize on 꼭 쥐다.(기회·구실 등을) 포착하다, 잘 이용하다, (생각 등이) 사로잡다

hoax [houks] n. 사람을 속이기, 날조

reminder [rimáində : r] n. 생각나게 하는 사람[것]

ongoing [ángòuɪŋ, ó(:)n-] a. 전진하는, 진행하는

[해석]

한센의 즉각 조치에 대한 집요한 요구는 우리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그의 특별한 관점에서 나오고 있다. 그와 그의 직원들은 위성과 남극에 위치한 기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수 천 개의 사이트에서 콜롬비아 대학 근처에 위치한 이름이 없는 건물인 그 연구소로 보내진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구가 1970년 이후로 기온이 0.6C 상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과 2008년 사이 10년 이 가장 더웠다는 것이다. 그는 지구가 위험할 정도로 과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한센은 20세기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어운 것이지만 지난해는 금세기 들어 가장 더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2008년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한센을 유독 싫어하는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이용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는 속임수라는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17. [정답] ①

[해설]

내용일치 문제라기보다는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다.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에 있다. 즉 일본이 미얀마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단어속어정리]

take steps to+V ~하려는 조치를 취하다

forgive [fə : rgív] v. 용서하다, (빚 따위를) 탕감하다

resume [rizú : m / -zjú : m] v. 되찾다, (건강을) 회복하다, 다시 시작[계속]하다

full-fledged [fúlfledʒd] a. 깃털이 다 난, 자격이 충분한. 완전한, 전폭적인

make an announcement ~---을 발표하다

following [fɔ́louɪŋ / fál-] prep. ~에 이어, ~의 뒤에

junta [hú(:)ntə, dʒántə, hán-] n. (특히 혁명정권 수립 후의) 지도

자 집단, 군사 정권

nominally [námənli / nóm-] a. 명목상, 이름뿐으로

civilian [sívíljən] a. 일반인의, 민간의

sweeping [swí : piŋ] a. 광범위한, 포괄적인, 철저한

prominent [prámənənt / próm-] a. 현저한, 두드러진, 저명한

parliamentary [pà : rləméntəri] a. 의회의

by-election, bye- [báiilékʃən] n. 중간 선거, (국회 등의) 보궐 선거

urge+목적어+to+VG ~에게 ~할 것을 촉구하다

hose arrest 가택 연금

exempt [igzémpt] vt. (의무 따위를) 면제하다

[해석]

일본은 미얀마의 민주 경제 개혁을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약 3천억 엔 즉 37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하고 전면적인 개발 지원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토요일에 말했다. 정부는 메콩 강 지역 5개국 지도자들과의 정상 회담에 이어 일본 수상 요시히코 노다와 미얀마 대통령인 U Thein Sein와의 회담 직후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미얀마 국부 정권은 지난 해 명목상 민간 정부에 권력을 넘겼고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최고의 민주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가 최근에 있는 의회 중간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저명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등 전면적인 정치 경제 개혁을 내놓아 세상을 놀라웠다.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는 과거 차관으로 일본에 약 5천억 엔 즉 6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보기해석]

① 일본은 미얀마에게서 개혁 지원을 위해 부채를 면제해 줄 것이다.

② 미얀마 최고의 민주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

③ 군부가 현재 미얀마를 장악하고 있다.

④ 일본은 미얀마에 철저한 정치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8.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중국이 영화 타이타닉의 한 누드 장면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①의 내용은 첫 번째 문장으로 유추할 수 있고 ③는 마지막 문장에서 officials did not tamper with the scene와 관련된 내용이며 ④의 경우는 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의 경우는 글의 주제와도 거리가 먼 내용이 된다.

[단어속어정리]

notorious [noutó : riəs] a. (보통 나쁜 의미로) 소문난, 유명한

censorship [sénsərʃɪp] n. 검열

have no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없다

controversial [kántrevó : rʃəl / kòn-] a. 논쟁의, 논쟁을 즐기는

tamper with 참견하다, 함부로 고치다, 주무르다

conventional [kənvenʃənəl] a. 전통적인

take issue with ~와 다투다, ~에게 이의를 제기하다

with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도 없이

[해석]

중국의 최근의 수치스런 검열 사건은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케이트 윈슬렛의 영화 타이타닉의 15년 된 누드 장면과 관련한 것이다. 4월 10일에 이 영화 3D 판이 이 누드 장면을 빼고 중국에서 개봉되었다. 중국 정부가 그 장면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을 더욱 논란이 되게 한 것은 이 영화의 종전 오리지널 판이 1998년 중국에서 개봉되었을 때는 당국이 이 장면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기해석]

① 중국은 정치 검열을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여겨진다.

② 중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3-D 판을 개봉하기로 했다.

③ 1998년 중국은 그 누드 장면을 문제 삼지 않았다.

④ 영화 "타이타닉"은 15년 전에 처음 개봉되었다.

19. [정답] ②

[해설]

문두의 Turtles like most reptiles require a specific diet~ 내용에 ②가 위배된다. 즉 specific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이므로 ‘아무런 먹이나 먹는다’는 것은 아니다.

[단어속어정리]

rewarding [riwɔːrdɪŋ] a. 가치가 있는, 보람이 있는, 보답하는
far from 결코 아닌

reptile [rɛptɪl, -taɪl] n. 파충류의 동물

specific [spɪsɪfɪk] a. 특유한, 특수한, 독특한(=peculiar)

depending upon ~에 따라

well informed 잘 아는

as to ~에 관해

maintenance [meɪnt-ənəns] n. 유지, 보존, 정비

dietary [daɪətəri / -təri] a. 식사의, 음식의

look out for 대비하다, 경계하다

be aware that S+V ~을 알다, 인식하다

crucial [krúːʃəl] a. 결정적인, 중대한

expecting 임신 중인, 아이를 낳을 예정인

[해석]

애완 거북이를 기르는 것은 재미있고 보람된 경험이 될 수 있다. 거북이는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있고 수영만 하는 것처럼 보여 크게 손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파충류처럼 거북이는 나이와 종류에 따라 특이한 먹이와 생활환경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주인은 적절한 탱크 관리, 필요한 먹이, 제대로 된 관리, 그리고 경계해야 할 건강 문제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의 새 거북이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길러진다면 이 애완동물을 아주 오랫동안 기를 수 있어 어떤 애완 거북이는 100년 넘게 산 것으로 알려진 적도 있다. 애완 거북이를 사려는 사람은 애완 거북이가 흔히 가지고 있는 살모넬라 균을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북이를 만지고 난 뒤 매번 손을 씻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애완 거북이를 임신부가 있는 집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 그리고 노인들, 또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길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보기해석]

- ① 애완 거북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 ② 애완 거북이는 주는 먹이는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다.
- ③ 만일 애완 거북이에 특별한 관리를 하면 아마 100살도 살 것이다.
- ④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는 애완 거북이를 길러서는 안 된다.

20. [정답] ④

[해설]

대학에 다닐 때 화석 수집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단어속어정리]

allegedly [əˈlɛdʒdli] ad.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소문[전해진 바]에 의하면

be based on ~에 근거하다

be told that S+V ~라는 말을 듣다

janitor [dʒænətər] n. 문지기, 수위

specimen [spɛsɪmən] n. 견본(sample), (동식물의) 표본

[해석]

Roy Chapman Andrews는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주인공의 바탕이 된 실제 인물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 그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모험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그는 자신의 일대기에 썼다. 1906년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Roy는 뉴욕시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주최한 교내 전시에 참석하였다. 그 전시에 굉장히 고무되어 그는 바로 그 박물관에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Andrews는 바닥을 걸레

질하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고 박물관을 위해 표본 수집을 시작했다. 1920년 그는 고비 사막으로 화석 탐사 팀을 이끌고 갔으며 그의 팀은 처음으로 공룡 알을 발견했다.

[보기해석]

- ① 영화가 그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 ② 그는 어려서부터 탐험가가 되는 꿈을 꾸었다.
- ③ 그는 박물관에서 청소부로 일한 적이 있다.
- ④ 그는 대학 재학 중 화석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국사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가. 문무 관료전 지급(신문왕 7년, 687) → 나. 내외관 녹읍 혁파(신문왕 9년, 689) → 다.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 지급(성덕왕 21년, 722) → 라.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녹읍을 지급(경덕왕 16년, 757)

02. [정답] ①

[오답 분석]

- ② 상평창 제도가 고려시대 처음 실시된 것은 성종 12년(993)에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창을 설치하면서이다.<손흥열>
- ④ 고려시대의 국가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원(上元), 즉 정월 15일(처음에는 2월 15일)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연등회와 11월 15일[중동(仲冬)]에 개경에서 열리는 팔관회였다.<한영우> 고려에서는 연등회의 거행은 처음에 매년 1월 15일에 열렸다.<박용운, 이병희 등>

03. [정답] ③

[오답 분석]

- (가) 문과의 소과는 성균관 입학시험이기 때문에 소과에 낙방하면 원칙적으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없다.
- (라) 알성시(謁聖試)는 국왕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행하여지는 성균관의 문묘석존례(文廟釋尊禮)에 참석한 뒤 명륜당에서 실시하는 부정기시험으로 특별시험이다. 조선초기에는 3품 이하의 현직 관료와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지방 유생까지도 개방하였다.

04.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 신석기시대

[오답 분석]

- ③ 공주 석장리에서 개모양의 석상, 고래, 멧돼지 등의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단양 수양개에서는 물고기를 새긴 선각화가 발견되었다.<한국사통론>

05. [정답] ③

[해설] ① 군사분계선을 양측의 접촉선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휴전회담은 포로교환 문제로 벽에 부딪혀 1년 6개월이나 끌었다. 미국은 포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르자는 자유송환을, 북한과 중국은 모든 포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미국이 자유송환을 고집한 것은 공산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공산주의와의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다.<한국사의 이해>

06. [정답] ①

[해설] 상기 자료는 초기국가(연맹체국가)에 관한 것이다. ① 초기국가는 국가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군장귀족회의를 통하여 결정·집행하였다. 그러나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점차 군장귀족회의체에서 행정관부가 분화되어 갔으며 회의체가 가지는 역할이나 기능은 점차적으로 축소·분화되어 갔다.

07. [정답] ②

[해설] ㉠ 박문국을 세워 한성순보 발행(1883년) → ㉡ 경복궁에 전등이 처음으로 가설(1884년=7차 교과서, 1887=검인정 교과서) → ㉢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개통(1898년) → ㉣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창설(1908년)

08. [정답] ④

[해설] ④ 관등제에 있어서 고구려는 형(兄), 신라는 찬(滄), 사(舍) 등의 명칭이 있었는데, 이는 족장에 대한 우리 고유의 존칭에서 유래하였다. 이에 비해 백제의 술(率), 덕(德)은 중국식이다.

09. [정답] ③

[오답 분석]

- ③ 선종은 지방 호족들이 후원하였고, 소외되고 배움이 부족한 호족층 이하 서민층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옛 백제와 고구려지역에서 특히 성행했다. 이는 불립문자와 견성오도는 선종이 소박한 호족들의 체질에 맞았고, 전통적인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혁신성은 중앙집권적인 신라왕조에 반항하여 일어나는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한영우, 변태섭 등>

10. [정답] ①

[해설]

- (가) 이이의 이통기국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되며[이통기국(理通氣局)],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가 발하며 이가 타는 것[기발이승(氣發理乘)]이다.
- (나) 이황의 이기호발설이다.
- ① 이이는 주기론의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세계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경험적 세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철학 체계를 수립하였다.<6차 교과서>

11. [정답] ③

[해설]

- ① 자유당 시절의 1950년대는 남한사회의 전통적 사회질서가 밑바닥에서 해체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월남하여 남한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양반문화의 권위는 급도로 붕괴되었다. ... 미국의 경제원조와 함께 홍수처럼 밀려들어온 미국문화도 남한사회의 가치관과 생활풍속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전통적 가치관을 해체시키면서 근대시민정신을 고양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서양문화에 대한 숭배가 지나쳐서 전통을 총체적으로 비하하는 민족허무주의적 사고가 팽배함으로써 주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한영우>
- ② 사상계 창간(1953), 폐간(1970년 5월 김지하의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다), 사상계는 자유당 시절에 반독재의 선봉에 섰던 지식인층을 대변하는 잡지이다.
- 창작과 비평(1966년 창간), 문학과 지성(1970년 창간)
- ④ 민중사학은 특정계급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고 바라는 역사를 의미한다. ... 민중사학의 저개과정에 대하여 조동걸은 그 연원을 1920년대 단재의 민중의식과 1930년대 백남운 등의 계급사관에 두고, ... 민중사학은 일련이 사회변혁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적 풍토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1980년대 이후 크게 진척되었다.<한국사학사 464>
- 전두환정부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국수주의적 역사학을 선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사인식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국민정서를 유도하여 체제유지에는 기여하였으나 건전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젊은 학도들 사이에는 이른바 민중사학이 유행하여 역사인식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한영우>

[오답 분석] ③ 1980년대에는 외형상 경제규모가 급속히 커졌으나,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갈등 그리고 지역갈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노동자의 급증과 열악한 임금 및 노동환경에 따라 농민운동도 고개를 들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민중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민중사회건설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종전의 민족민주화운동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제 민족, 민주, 민중을 합친 이른바 삼민 투쟁이 학생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한영우>

12. [정답] ③

[해설] 상기 자료는 '도톨밤의 노래'로 고려말기 문인 윤여형의 시이다. 고려후기에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권문세화들이 농장을 늘리고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이 주인이라고 행사하며 조를 거두어 농민들은 도토리나 주워 먹으며 살아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③ 고려 말 시기는 국가재정이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의창과 상평창 제도는 거의 허구화되어 있었다.

13. [정답] ④

[오답 분석] ① 활빈당의 대한사민논설 13조목
② ③ 갑오 2차개혁 시 흥범 14조

14. [정답] ④

[해설] ④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 중화주의는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우리 문화가 최고라는 국수주의를 팽배시켜 조선 문화의 전 분야에서 조선 고유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되어 18세기 진경문화를 이룩하였으며 19세기 위정척사사상의 바탕이 되었다. 이 문화의 주도층은 서인계로 사상적 기반은 조선 성리학이었다.<정욱자>

15. [정답] ②

[해설] ㉠ ㉡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 조사는 토지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배타적인 자본주의적 사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리고 경작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소유권(部分所有權)으로서의 도지권(賭地權) 등은 아무 보상없이 토지소유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또한 토지의 화폐화가 이루어지고 일본자본의 자유스러운 활동 및 축적이 보장되었는데, 이는 동시에 조선 농민들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쳐쓴 한국현대사, 시민 한국역사>

[오답 분석]

㉢ 토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전통적 사유권은 개항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도 성립되어 있었다. 개항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적' 사유권을 확립하여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체제를 확립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은 그것을 '근대' 법적으로 완결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사유권은 정밀히 조사되지 않았다.<강만길>
㉣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일본인 대지주(大地主)가 증가하였고, 지난날의 양반지주들도 과거의 특권을 물려받게 되었다.<이기백, 한국사신론> 문제 9번 해설 참조.

16. [정답] ②

[해설]

㉠ 속중은 45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당파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당시에는 환국이라 하였다. 환국정치운영은 말하자면 군주가 내각을 자주 교체하여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다.<한영우>

㉢ 경신환국(속중 20년, 1680)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은 정책 수립과 상대 붕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세력과 신진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론(이이와 송시열 계통)과 소론(성혼과 윤증 계통)으로 분열된다.

[오답 분석]

㉠ 영조의 탕평책은 붕당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7차 교과서>
㉡ 영조는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자천권의 관행을 없앴다. 그러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정조 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7차 교과서>

17. [정답] ④

[해설] ④ 「조선봉건사회경제사」(백남운)

[오답 분석]

① 박은식 「한국통사」(박은식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
② 신채호 「조선상고사」(신채호는 임시정부의 외교론을 비판하고 무장투쟁 주장, 무정부주의 주장)
③ 안재홍 「조선상고사감」(안재홍은 해방이후 국민당을 조직,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의 정치이념을 주장) 안재홍의 민족정기는 계급화해적인 불합철학을 주장하였다.

18. [정답] ④

[해설] ④ 전분 등급에 상관없이 1결당 조세액은 동일(1등전 ~ 6등전까지)했다. 토지 1결 면적은 다르지만 1결마다 생산량은 같기 때문에 연분 등급이 같으면 각 1결마다 부세는 일정한 것이다

[오답 분석]

① ② 연분 9등(풍흉의 정도에 따라 연분 결정), 전분 6등(토지 비척에 따라 전분 결정)
③ 전분 6등에서 1등전에서~6등전까지 1결의 면적은 절대면적(지가제)이 아니라 토지의 비육과 척박에 따라 상대면적(결부제)이 되었다.

19. [정답] ①

[해설] ㉠ ㉢ ㉣ 객주와 여각은 경향 각지의 포구, 큰 장시 등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주선하며, 도고로서 상품 도매와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숙박업·화물수송업·금융업(자금 대부, 어음발행, 예금 업무) 등을 겸하는 중간상인이다.<7차 교사용지도서>

[오답 분석] ㉡ 공납물품의 대리 납품업자는 공인이다. ㉢ 고공(머슴)

20. [정답] ④

[오답 분석] ④ 신해통공이란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김당택, 우리한국사> 신해통공이 1791년(정조 15년)에 실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도시 사상인층과 소생산자층의 활동이 한층 더 활발해졌으며, 시전상인을 대신해 사상도고가 상업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들 사상도고는 우세한 자본력과 조직망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점상업을 벌였다.<한국사의 재조명>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④	①	③	③	④	④	④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④	④	③	②	②	④	④

01. [정답] ④

[해설]

- ④ **국세징수법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02. [정답] ①

03. [정답] ③

[해설]

- ③ 구법의 위임에 의해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 ④ 구 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라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99두5207)

구)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제40조[별표 6]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보충 : 위 규정의 표현만 보면 과징금액수가 마치 정액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과징금의 성질, 즉 불법수익의 박탈을 고려하여 재량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침익적이므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라고 판시하였다.

04. [정답] ③

[해설]

- ③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④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판 2002두3669)

05. [정답] ④

[해설]

- ③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결정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법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 ④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 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은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08두2200)

06. [정답] ④

[해설] ㉞ 표준공시지가결정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07. [정답] ③

[해설]

- ③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97누21086)

08. [정답] ②

[해설]

-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체제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98두2270)

09. [정답] ③

[해설]

- ③ 수정허가는 허용되지만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99두1854)

10. [정답] ③

[해설]

- ③ 통고처분권자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 즉 친고죄에 해당한다.

11. [정답] ③

[해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⑤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 그 효력을 상실한다.

12. [정답] ④

[해설]

제28조 (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13. [정답] ①

[해설]

- 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 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원 특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헌결 2005헌마506)

14. [정답] ④

15. [정답] ④

[해설]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6. [정답] ③

[해설]

- ③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두18928)

17. [정답] ②

[해설]

- ② 구.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5항에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이용사(업주)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이치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1두1611) 판결 **【퇴폐이발소 (명의변경 후)영업정지처분취소】**

18. [정답] ②

[해설]

- ② 행정행위의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치행정의 견지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 불확정개념의 경우에 전문적·경험적·정책적 판단을 하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판단여지라고 하는 것이다.

19. [정답] ④

[해설]

- ④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룰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91누13212)

20. [정답] ④

[해설]

-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두13845)

행정학개론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②

[해설]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중 민간위탁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① 계약(위탁계약)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구입자로서 비용을 부담한다.
- ② 바꾸려는 소비자의 선택과정에서 민간업체 간 경쟁이 발생한다. 계약과정에서 민간업체 간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다.
- ③ [199번]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 ④ 자급방식(자조활동)방식이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을 말한다.

02. [정답] ③

[해설]

- ① 실제설은 전체주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 ③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행정의 조정지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의 입장이다. 실제설은 국가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국민적 역할을 강조한다.
- ④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과정설이 아니라 실제설이다. 실제설은 사익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과정설은 사익들이 경쟁과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공익이 도출된다고 보므로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03. [정답] ②

[해설]

- ① 대규모 조직인 경우 행정이나 경영이 관료제 형태를 띠는 점에서 관료제는 공통점에 해당한다.
- ② 양자는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③ 양자 모두 효과적인 목표달성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 즉 능률적 관리가 강조되며 관리기술(MBO, BPR, TQM, OD 등)을 같이 사용한다.
- ④ 공공조직과 공공관료에게는 독특한 역할이 요구되고 시민들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공공조직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공공관료에게서는 통합, 공정, 반응, 책임성, 공개성 등이 요구된다.

04. [정답] ③

[해설]

- ①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경제적 인간을 상정하고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론모형이 먼저 제시되므로 연역적 이론이다.
- ③ 공공선택이론은 기존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하여 관할권의 중첩과 다조직 구조배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하여 경쟁성과 대응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 ④ 고객의 수요를 부합시킬 수 있는 공급영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호가 동질적인 집단별로 공급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05. [정답] ④

[해설]

- ① 하위정부에서 형성되는 삼자 간 연계 관계의 안정성과 통합성은 높고 관료와 이익집단은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므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고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
- ② 조합주의 체제하에서 이익집단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의 협력적·위계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집단들은 역할에 있어서 기능적 중요성이 다르다고 전제한다.
- ③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사회중심 이론으로서 관료의 역할보다는 외부 집단이나 지배계층의 역할을 주목한다.
- ④ 참여자간 협력성이 강조되는 정책공동체는 이해집단과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유럽식 사회조합주의와 맥을 함께 한다. 다원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경쟁성이 강조되는 이슈네트워크이다.

06. [정답] ①

[해설]

- ① 상향식 접근론은 일선관료와 그들이 접촉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므로 일선관료에게 재량이 주어져야 하며 그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법적 구조화는 집행자의 반발, 지연, 갈등 등을 미리 예견하여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법령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향식 접근을 강조한 Sabatier와 Mazmanian의 정책집행요인론의 내용이다.
- ③ 하향식 집행론은 집행이 잘 되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상향식 집행론은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중시한다.
- ④ Berman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상호작용, Lipsky의 일선관료제론 등은 모두 상향식 접근론에 해당한다.

07. [정답] ③

[해설] 정책의 유형은 대중이익이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적인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보호적 규제이자 사회적 규제에 해당된다. 정책의제설정 유형은 정부가 채택한 후에 홍보해 나가므로 동원형(사회문제-정부의제-공공의제)에 해당된다.

08. [정답] ④

[해설]

- ①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평가 자체에 대한 예비평가로서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 ③ 적합성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전반적인 프로그램 타입이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 ④ 메타평가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다.

09. [정답] ①

[해설]

- ② 는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명령통일 원리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분명한 보고체계를 강조하며 이러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one man one boss'의 원리를 강조한다.
- ③ 전문자격 직무는 직무를 나누어서 수행하므로 수평적 전문화는 높은 반면, 계층이 없으므로 수직적 전문화는 낮다.
- ④ 직무확장(enlargement)은 한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수평적으로 넓혀주므로 수평적 전문화를 낮아지게 하는 설계방식인 반

면, 직무충실(enrichment)은 한 사람의 권한과 책임을 수직적으로 넓혀주므로 수직적 전문화를 낮아지게 하는 설계방식이다.

10. [정답] ②

[해설]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이루어진다.

② 첫 번째 사례는 업무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욕구의 좌절에 관한 내용이므로 2번째 욕구인 안전욕구와 관련되며, 두 번째 사례는 인간은 소속감을 느끼는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며 자기가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게 된다는 3번째 욕구인 사회적 욕구와 관련된다.

11. [정답] ②

[해설] 지방공사는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따라서 설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 소관사항이다.

12. [정답] ③

[해설] ③ TQM은 장기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부혁신기법으로서 민영화방식이 아니므로 시장확대 전략이 아니다. 즉 정부가 서비스의 주공급자로서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도 민영화와 같은 시장확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13. [정답] ②

[해설]

- 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장기 소득보장 시스템이다.
- ② 비기금제는 미리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부과하여 조성하는 방식이므로, 소요재원의 확보와 무관하다. 소요재원의 확보 방식은 기여제(연금기금 조성비용을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 부담)와 비기여제(연금기금 조성비용을 국가가 단독 부담)가 있다.
- ③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5. 6. 개정 및 2016. 1. 1 시행)되어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기존 재직자 포함하여 퇴직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65세부터 지급된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대로 60세이다.
- ④ 공무원 연금제도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건국 초기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에 6·25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후 정리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정부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러다 1공화국 말기인 1959년에 들어와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에 시행하게 되었다. 군인연금법은 1963년부터 시행되었다.

14. [정답] ②

[해설]

- ② 처의 차장들은 2013. 11부터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전환되었다.
- ③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제도는 폐지되어 기능직의 경우 관리운영직군 및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되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일반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15. [정답] ②

[해설]

- ① 세출예산심의에 있어서 상임위는 증액지향적인 반면, 예결위는 삭감지향적이다.
- ② 제한이 있는 세출예산과 달리 세입예산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 ③ 국정감사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부의 위법·부당한 행정활동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국정감사제도는 한 때 폐지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심의의 중요한 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 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8월중)에 실시되므로 예산심의(9월초)보다 먼저 진행된다.
- ④ 헌법에는 예산안을 90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헌법상 심의기간은 60일간인 반면,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을 120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상 심의기간은 90일간이다.

16. [정답] ③

[해설] ③은 이체가 아니라 예비비에 재한 내용이다. 이체는 정부조칙법의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의 소속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그에 따른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정답] ②

[해설]

- ①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이 인정된다. 선결처분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118조 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재의요구와 달리 법령 위반 사항만으로 제한한다.
- ④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기본적인 상호견제수단은 일반적 견제수단과 양기관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의 특수적 견제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평상시에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 견제수단으로는 지방의회의 경우 출석·답변요구권, 지방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권, 동의 및 승인권, 의결권 등을 가지며, 집행기관은 의회소집권 및 소집요구권,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발의권,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 등을 행사한다. 한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에 심각한 대립·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양 기관에 특수적 권한 또는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데, 비상시의 특수적 견제수단으로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우리나라는 불인정),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

18. [정답] ③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발행된다.
- ② 지방채는 2년 이상에 걸쳐 상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다.
- ③ 모집공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현금을 납입 받고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모집공채(공모공채)가 국채에 비하여 원활하지 못하므로 인허가,

등록시 이미 발행한 지방채증권을 강제로 소화시키는 방식의 매출 공채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강제적인 방식으로서 준조세성격을 지닌다는 문제가 있다.

19. [정답] ③

[해설]

- ② 지방재정의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확충 노력의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상호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한다.
- ③ 재정벌칙제는 일정한 사유발생시 국가가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제도로써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20. [정답] ③

[해설]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행정통제는 외부통제이다.

- ㉠㉡(입법통제)㉢(사법통제)㉣은 외부·공식통제,
㉤은 외부·비공식통제, ㉥은 내부·비공식통제,
㉦㉧은 내부·공식통제이다.

사 회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가)는 소득 증가율보다 세액 증가율이 작기 때문에 세율이 점점 작아지므로, 역진세에 해당한다. (나)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므로 누진세에 해당한다.

ㄷ. 역진세는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세금이다.

02. [정답] ③

[해설]

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ㄷ. 대규모 공공 사업은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즉, 확장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ㄱ.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여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ㄹ. 경기 과열기에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03. [정답] ④

[해설] A재와 B재는 대체재의 관계, A재와 C재는 보완재의 관계이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고,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④ C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C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보완재 관계에 있는 A재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A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①, ②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A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B재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C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04. [정답] ④

[해설]

④ 채권과 정기 예금은 모두 만기가 있다.

① 을은 □□ 증권에 돈을 맡기고 □□ 증권이 A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을이 직접 A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즉, 을은 직접 금융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②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이 발행한 채권보다 주식의 안전성이 낮다.

③ 채권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

05. [정답] ③

[해설]

ㄴ. 원료 가격 상승은 B재의 공급 감소 요인이다. 이때 B재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으므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탄력적이다.

ㄷ. A재의 가격 상승으로 C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이다. 따라서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C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ㄱ. A재와 D재가 대체재인 경우, D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상관없이 A재의 가격 상승은 D재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D재의 판매 수입은 항상 증가한다.

ㄹ. C재와 D재의 변화 전 판매 수입액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

06. [정답] ②

[해설]

② 20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게 되므로 물가 수준은

떨어지고 있다.

①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가 일정 금액으로 증가하므로 감소하게 된다. 2012년에 20%, 2013년에 16.7%, 2014년에 14.3%이다.

③ 2012년의 물가 상승률은 25%, 경제 성장률은 20%이다.

④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가 125에서 110으로 줄었으므로 -12%이다.

07. [정답] ④

[해설]

④ 환류 단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재 요구가 이루어진다.

①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②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정책 결정 기구 중에 의회에 비해 행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③ 시민들의 여론 수렴은 주로 투입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08. [정답] ③

[해설]

ㄴ. 비례 대표제는 지방 의회 선거에서도 지역구 선거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ㄷ. 비례 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는 별도로 정당 이름만 인쇄되어 있는 별도의 투표 용지를 사용한다.

ㄱ.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 대표제와 함께 비례 대표제가 적용된다.

ㄹ. 우리나라는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목록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권자가 직접 정당별 당선자를 선택할 수 없다.

09. [정답] ①

[해설] A형은 신민형, B형은 향리형, C형은 참여형 정치 문화이다.

ㄱ. 향리형 정치 문화에서는 일당 독재에 의한 권위주의 사회가 주로 나타난다.

ㄴ. 향리형과 달리 참여형정치 문화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ㄷ. 향리형에서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나, 신민형에서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다.

ㄹ. 향리형에서는 중앙 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 정치에 복종할 의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10. [정답] ③

[해설]

③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실시한 경우 2심재판은 고등 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단독부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심 재판이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다.

① 민·형사 사건 중 단독 사건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되며, 합의사건은 '지방 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② 1심 재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고라 한다.

④ 2심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해 3심을 청구하는 것을 재항고라 한다.

11. [정답] ②

[해설] (가)는 권리 능력, (나)는 행위 능력, (다)는 의사 능력이다.

ㄱ.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무효,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은 대체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된다.

ㄹ. 태아는 권리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고, 권리 능력이 없다면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을 따질 이유가 없다.

ㄴ.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확립적으로 정해져 있고, 의사 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12. [정답] ④

[해설] (가)는 수사 단계, (나)는 공판 과정

- ④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집행 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이 미뤄지기 때문에 석방이 된다.
- ①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있으나, 구속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야 한다.
- ②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된 경우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혐의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공소 제기 전 인 수사 단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13. [정답] ②

[해설]

- ㄱ. 민사 조정 제도는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 ㄴ. 인영이 제기한 소송은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는 대여금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갑이고, 피고는 대여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호성이다.
- ㄷ.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 사실 자체만을 우편 관서에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가압류의 여부는 승소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

14. [정답] ④

- [해설] ㉠은 국민 투표, ㉡은 상임 위원회 또는 법제 사법 위원회이다.
- ④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①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에 해당한다.
- ② 법률 개정안 제안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가 할 수 있다.
- ③ ㉡에는 '상임 위원회와 법제 사법 위원회'가 들어갈 수 있다.

15. [정답] ②

[해설] (가)는 기능론, (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한다.

- ㄱ. 기능론에서는 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내용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본다.
- ㄷ.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이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비해 구조적 분석을 중시한다.
- ㄴ.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호혜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교환 이론이다.
- ㄹ. 갈등론은 교육이 현재의 계층 구조를 재생한다고 보며 이를 비판한다.

16. [정답] ④

[해설]

- ④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미국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은 문화가 후천적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생활양식임을 보여 준다.
- ①, ② 알 수 없다.
- ③ (가)에서 이민 간 사람이 현지 문화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변동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문화의 변동성을 찾아볼 수 있다.

17. [정답] ③

[해설]

- ③ 비공식 조직은 이익 사회의 한 유형이므로, 비공식조직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공동 사회의 사례가 될 수 없다.

- ① 기업과 같은 이익 사회는 2차 집단에 해당한다.
- ②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 ④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모든 사회 집단은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18. [정답] ②

[해설] 갑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 을의 관점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 ㄷ. 사회 실재론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사회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 ㄴ. 사회 실재론에서는 공익을 사익의 단순 합 그 이상으로 본다.
- ㄹ. 사회 명목론은 지나칠 경우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 실재론은 전체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19. [정답] ④

[해설] A는 사회 보험인 국민 연금 제도, B는 공공 부조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 ㄴ. 사회 보험인 국민 연금제도는 수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공공 부조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수혜자의 비용 부담이 없다.
- ㄹ. 사회 보험보다는 공공 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 ㄱ. 공공 부조는 대상자를 국가가 선정하는 제도이며, 임의 가입은 민간 보험의 특징이다.
- ㄷ. 사회 보험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20. [정답] ③

[해설] 갑은 근대화론, 을은 종속 이론에 해당한다.

- ③ 근대화론은 서구화를 곧 근대화로 보는 반면, 종속 이론은 선진국에의 종속에서 탈피하여 주체적인 발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① 근대화론은 진화론적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
- ② 근대화론은 저개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서구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종속 이론은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종속으로 인해 제3세계가 저발전 상태에 머문다고 본다.

과 학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④

[해설] 그림자가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는 시각선(세로선)을 가리키므로 오후이고, 그림자가 오른쪽을 가리킬수록 관측 시각이 느리다. 같은 날 그림자의 길이가 더 긴 (가)의 위도가 (나)의 위도보다 높다. 시간은 약 2시간 차이이다.

02. [정답] ③

[해설] a, b 는 각각 물체의 가속도와 알짜힘이다. 따라서 서로 비례관계에 있으며, b/a 는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고, a 가 일정하므로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 가 일정하므로 알짜힘은 일정하다.

03. [정답] ③

[해설]

- ㄱ.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으므로 (+)전하이다.
- ㄴ. 운동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므로 속력은 증가한다.
- ㄷ. 전기력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한다. 따라서 전기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04. [정답] ④

[해설] B가 A에서 멀어짐에 따라 소리가 높아지므로 진동수는 증가하고, 파장은 길어진다. $v = f\lambda$ 에서 속력 v 도 증가한다.

05. [정답] ①

[해설] 선수의 무게를 W 라 할 때, 받침점을 축으로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므로, $2 \times F_1 = 4 \times W$ 에서 $F_1 = 2W$,
다이빙대의 알짜힘 = 0 이므로 $F_2 = F_1 + W$, $F_2 = 3W$ 이다.
따라서 $F_1 : F_2 = 2 : 3$ 이다.

06. [정답] ②

[해설] ㄱ. X의 양성자 수는 1, 질량수는 3이므로 3_1X 이다.
ㄴ. X는 H(수소), Y는 He(헬륨) 1 주기 원소 이다.
ㄷ. Y와 Z는 동위원소이므로 화학적 성질은 같다.

07. [정답] ①

[해설]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 있다. (가)와 (나)의 밀도비는 1 : 16이며, 이산화탄소는 화합물이다.

08. [정답] ②

[해설] A는 Si, B는 Al 이므로 금속성은 B가 더 크고,
 SiO_2 는 4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공유결합 물질이며,
 B^{2+} 이온화 에너지는 $E_1 + E_2 = 578 + 1817 = 2395 \text{ kJ/mol}$ 이다.
산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09. [정답] ④

[해설] 반응 (가)는 $2Na + 2H_2O \rightarrow 2NaOH + H_2$ 이므로
Na의 산화수는 증가($0 \rightarrow +1$)하여 산화되고,
H의 산화수는 감소($+1 \rightarrow 0$)하여 환원된다.

따라서 Na의 전자는 H로 이동한다.

A는 염기성 용액으로 BTB 용액을 넣으면 푸른색을 띤다.
B는 무극성 분자이다. HCl의 수소이온이 H_2O 의 비공유 전자쌍을 받으므로 루이스의 산이다.

10. [정답] ①

[해설] 용액 1mL 당 $NaOH(aq)$ 의 수를 a , $HCl(aq)$ 의 수를 b 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혼합 용액	$NaOH(aq)$ 입자 수	$HCl(aq)$ 입자 수	생성된 물 분자 수(상댓값)
(가)	$50 \times a$	$10 \times b$	2
(다)	$10 \times a$	$50 \times b$	1

용액 (가)와 (다)의 생성된 물 분자 수를 비교하면

$a : b = 1 : 2$ 이다.

11. [정답] ④

[해설] 빛이 발생하는 것은 생명의 특성 중 물질 대사에 해당한다.
①은 발생과 성장, ②는 자극에 대한 반응, ③은 항상성 유지

12. [정답] ②

[해설] 수술을 제거하는 것은 같은 꽃에 있는 암술에 수분되는 것(자가수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순종의 둥근 완두꽃과 순종의 주름진 완두꽃을 교배하여 나온 자손이 모두 둥근 완두이므로 둥근 완두 형질이 우성이다. 둥근 완두(A)의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므로 검정 교배하여 나온 자손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 이형접합=1 : 1이다. 둥근완두(A)를 자가교배하면 우성형질 : 열성형질 의 표현형의 비가 3:1로 나타난다.

13. [정답] ①

[해설] ㉠과 ㉡은 염색 분체이다. (나)의 1 시기는 S기이며,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시기는 전기이다. DNA를 구성하는 당은 5탄당인 디옥시리보스이다.

14. [정답] ①

[해설] 개체군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한 종의 집합체이다. (가)는 생물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고, (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가뭄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은 작용에 해당하고, 포식과 피식, 경쟁배타의 원리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 작용에 해당한다. 개체군 내 개체간의 상호작용에는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등이 있다.

15. [정답] ③

[해설] ㉠은 이두박근, ㉡은 삼두박근으로 모두 가로무늬근이며, 팔을 굽힐 때 ㉠은 수축하고 ㉡은 이완한다. 근육이 수축할 때 I대(명대)는 짧아지고, A대(암대)는 변하지 않는다. 근육이 이완할 때 I대(명대)는 길어지고, A대(암대)는 변하지 않는다.

16. [정답] ②

[해설]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질량과 관련이 있고, 가장 주된 이유는 행성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지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중심별 타우세티와 HD 10700e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1AU)보다 가깝다. 태양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광도와 크기가 커지므로 생명가능지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17. [정답] ④

[해설] 지구 환경 구성 요소들은 열린계이므로, 상호 작용에 의해 각권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다. 석회 동굴은 이산화탄소 등이 녹아 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켜 형성되므로 화학적 풍화 작용이며, 수권이 지권에 영향을 주어 형성된 것이다.

18. [정답] ④

[해설] 천발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모두 발생하며, 섭입대가 나타나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섭입대를 따라 깊어진다. 따라서 (가)의 분포는 서쪽이 발산형 경계(해령)이고 동쪽이 수렴형 경계(해구)인 D-D' 에서 나타날 수 있다.

19. [정답] ②

[해설] 자전축 경사 방향으로 보아 북반구는 A일 때 여름이고, B일 때 겨울이다. 태양의 고도가 계절을 결정한다. 남반구가 겨울 일 때 (나)에서 (가)보다 태양에 가까우므로 더 따뜻하다. (나)일 때 우리나라의 여름은 근일점, 겨울은 원일점에서 나타나므로 (가)의 여름보다 더 덥고, 겨울보다 춥다. 따라서 연교차는 (가)<(나)이다.

20. [정답] ①

[해설] 출몰성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은 적위가 클수록 길다. 따라서 B가 지평선 위에 가장 오래 떠 있다. 태양의 적경이 0h인 춘분날 자정에 남중하는 별은 적경이 12h인 B이다. 남중 고도(h)는 $90^\circ - \text{위도} + \text{적위}$ 이므로 C의 남중고도는 12.5° 이다. 춘분 이 후 태양은 하지를 거쳐 추분,동지로 이동하므로 적경은 커진다.

수 학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A - B = A \cap B^c$ 이므로
 $(A - B) - C = (A \cap B^c) \cap C^c$
 결합법칙에 의해
 $A \cap (B^c \cap C^c) = A \cap (B \cup C)^c = A - (B \cup C)$

02. [정답] ③

[해설]
 $\frac{\sqrt{b}}{\sqrt{a}} = -\sqrt{\frac{b}{a}}$ 일때, $a < 0, b \geq 0$
 이므로 분모 $x - 5 < 0$ 고 분자 $x - 1 \geq 0$ 이므로
 $5 < x \leq 1$ 인 정수 이므로

03. [정답] ④

[해설]
 $\left(\frac{1 + \sqrt{3}i}{2}\right)^{2016} + \left(\frac{1 - \sqrt{3}i}{2}\right)^{2016}$ 에서
 $2x = 1 + \sqrt{3}i$ 에서 $2x - 1 = \sqrt{3}i$ 의 양변을 제곱 해서
 $x^2 - x + 1 = 0$ 의 두근이 $\alpha = \frac{1 + \sqrt{3}i}{2}, \beta = \frac{1 - \sqrt{3}i}{2}$
 이므로 문제를 $x^3 = -1, \alpha^{2016} + \beta^{2016}$ 의 지수 2016을
 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므로 $x^6 = 1$ 에서 $1 + 1 = 2$

04. [정답] ①

[해설]
 $x = 1$ 을 대입 하면 $a_0 + a_1 + \dots + a_{10} = (-2)^5 \rightarrow \text{㉠}$
 $x = -1$ 을 대입하면 $a_0 - a_1 + a_2 - \dots + a_{10} = 2^5 \rightarrow \text{㉡}$
 $\text{㉠} - \text{㉡} \quad 2(a_1 + a_3 + \dots + a_9) = -64$
 $a_1 + a_3 + \dots + a_9 = -32$

05. [정답] ②

[해설]
 $f(x) = (x^2 + 1)(\text{몫}) + x + 3$
 $f(x) = (x - 1) + 2$
 $f(x) = (x^2 + 1)(x - 1)(\text{몫}) + R(x)$
 $R(x) = a(x^2 + 1) + x + 3$
 $x = 1$ 을 대입하면 $f(1) = 2$
 $2a + 4 = 2 \quad a = -1$
 $R(x) = -(x^2 + 1) + x + 3$
 $R(-2) = -4$

06. [정답] ②

[해설] $x = \sqrt{6 + 4\sqrt{2}}, y = \sqrt{6 - 4\sqrt{2}}$ 에서
 $x = \sqrt{6 + 4\sqrt{2}}, y = \sqrt{6 - 4\sqrt{2}}$
 $x = \sqrt{6 + 2\sqrt{8}} = \sqrt{4} + \sqrt{2}$
 $y = \sqrt{6 - 2\sqrt{8}} = \sqrt{4} - \sqrt{2}$
 $x^2 - xy + y^2 = (x - y)^2 + xy = (2\sqrt{2})^2 + 2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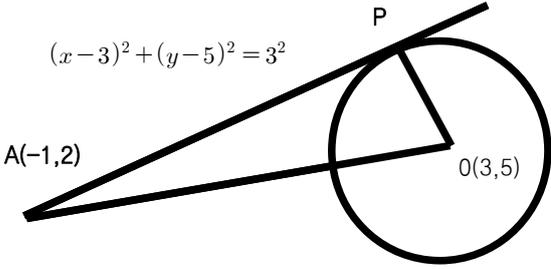
07. [정답] ④

[해설] $x(y + 1) - (y + 1) + 1 = 3$
 $(y + 1)(x - 1) = 2(x, y \text{ 정수})$
 $x - 1 = 1, y + 1 = 2$
 $x - 1 = 2, y - 1 = 1$
 $x - 1 = -1, y - 1 = -2$
 $x - 1 = -2, y - 1 = -1$
 모두 4쌍의 정수해

08. [정답] ②

[해설] $-\frac{1}{2} < x < \frac{3}{2}$ 으로 이루어진 2차부등식은
 $(x + \frac{1}{2})(x - \frac{3}{2}) < 0$
 $x^2 - x - \frac{3}{4} < 0$
 $-4x^2 + 4x + 3 > 0$ 와 $ax^2 + 4x + b > 0$
 를 비교하면 $a = -4, b = 3$ 이므로 $a + b = -1$

09. [정답] ④

[해설]
 $(x - 3)^2 + (y - 5)^2 = 3^2$


10. [정답] ①

[해설] $\frac{3x + 1}{2} = 5, x = 3$
 $f(5) = 9 - 7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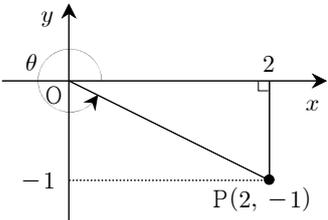
11. [정답] ②

[해설] $-2x + 3 = 7$
 $x = -2$
 $f(-2) = 7$
 $g(7) = f^{-1}(7) = -2$
 $g(2) = \{f^{-1}(2)\}^{-1} = f(2) = -1$

12. [정답] ④

[해설] 코오시 쓰와르츠부등식에 의해
 $(x^2 + y^2)(1^2 + 1^2) \geq (x + y)^2$
 $x^2 + y^2 \geq 8$

13. [정답] ②

[해설]


$$\sin\theta = -\frac{1}{\sqrt{5}} \quad \tan\theta = -\frac{1}{2} \text{ 이므로}$$

$$\sqrt{5} \sin\theta - 4\tan\theta = 1$$

14. [정답] ④

[해설] $\sin\theta - \cos\theta = \frac{1}{3}$ 양변 제곱 하면 $\sin^2\theta + \cos^2\theta = 1$ 이므로

$$1 - 2\sin\theta \cos\theta = \frac{1}{9} \text{ 에서 } \sin\theta \cos\theta = \frac{4}{9}$$

15. [정답] ③

[해설] $\{(-8)^2 \times 25^3\}^4 = 100^m$

$$\{2^6 \times 5^6\}^4 = 10^{2m}$$

$$10^{24} = 10^{2m}$$

$$m = 12$$

16. [정답] ②

[해설] $\log_{\frac{1}{2}} 9 + 2\log_4 27 = \log_{2^{-1}} 3^2 + 2\log_{2^2} 3^3$

$$= -2\log_2 3 + 3\log_2 3$$

$$= \log_2 3$$

17. [정답] ①

[해설]

$$A^2 - A + E = O \text{ 의 양변에 } A + E \text{ 를 곱하여 정리하면}$$

$$(A + E)(A^2 - A + E) = A^3 + E^3 = O$$

$$\therefore A^3 = -E$$

이 때, $A(-A^2) = E$ 이므로 $A^{-1} = -A^2$

$$A^2(-A) = E \text{ 이므로 } (A^2)^{-1} = -A$$

$$A^3(-E) = E \text{ 이므로 } (A^3)^{-1} = -E$$

$$\therefore A^{-1} + (A^2)^{-1} + (A^3)^{-1} = -A^2 - A - E = -2A$$

18. [정답] ①

[해설]

함수 $f(x)$ 는 $x = 1$ 에서 연속이므로

$$\lim_{x \rightarrow 1-0} f(x) = \lim_{x \rightarrow 1+0} f(x) = f(1) \text{ 에서 } a + b + 2 = 1$$

$$\therefore a + b = -1 \quad \dots\dots \textcircle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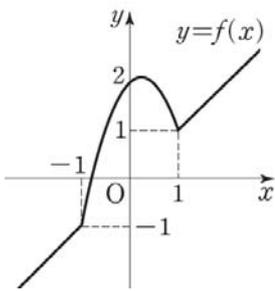
함수 $f(x)$ 는 $x = -1$ 에서 연속이므로

$$\lim_{x \rightarrow -1-0} f(x) = \lim_{x \rightarrow -1+0} f(x) = f(-1) \text{ 에서 } a - b + 2 = -1$$

$$\therefore a - b = -3 \quad \dots\dots \textcircled{2}, \textcircled{3} \text{ 을 연립하여 풀면 } a = -2, b = 1$$

$$ab = -2$$

따라서 $f(x) = \begin{cases} x & (|x| \geq 1) \\ ax^2 + bx + 2 & (|x| < 1) \end{cases}$ 이고 $y = f(x)$ 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19. [정답] ①

[해설]

$$f(x) = x^2 - x + 2 \int_0^x f'(t) dt \text{ 의 양변에 } x \text{ 에 대하여 미분하면}$$

$$f'(x) = 2x - 1 + 2f'(x)$$

$$\therefore f'(x) = -2x + 1$$

$$\therefore f(x) = \int (-2x + 1) dx = -x^2 + x + C \text{ (단, } C \text{ 는 적분상수)}$$

또, $f(x) = x^2 - x + 2 \int_0^x f'(t) dt$ 의 양변에 $x = 0$ 을 대입하면

$$f(0) = 2 \int_0^0 f'(t) dt = 0$$

따라서 $C = 0$ 이므로 $f(x) = -x^2 + x$

$$\therefore f(3) = -9 + 3 = -6$$

20. [정답] ②

[해설]

$$E(aX + b) = aE(X) + b = 0 \text{ 에서}$$

$$3a + b = 0 \quad \dots\dots \textcircled{1}$$

$$V(aX + b) = a^2 V(X) = 1$$

$$4a^2 = 1 \quad \therefore a = \frac{1}{2} \quad (\because a > 0)$$

①에서 $b = -\frac{3}{2}$ 이므로 $a + b = -1$